

하나님의 비전을 소망하는 우리의 꿈 이야기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 촬영철 (성의교회 목사)

이 책은 세계관을 이야기로 풀어보고자 한다. 아마도 철학적,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세계관 교육으로는 열매가 없다는 점잖은 깨달음의 결과일 것이다. 한국 기독교인의 세계관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뭔가 빠진 것 같다...

세계관을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보려는 시도가 구미의 세계관 학자들 사이에서 있었고, 그것이 이제 한국에 상륙하여 그 첫 작품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런데 왜 철학적 접근이 힘을 못쓰는 것처럼 보일까? 철학적 접근 자체에 결함이 있어서일까? 그렇지 않다. 철학적인 방식으로 세계관을 논의하고 거기서 얻은 감동과 힘으로 살던 세대가 있기는 했다. 그러나 요즘은 전통적인 철학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니 진리를 서술하는 방식도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스토리텔링, 혹은 저자의 말처럼 비전텔링의 방법이 도입된 것이다.

실제로 이것은 힘이 있을 뿐 아니라 좀 더 성경의 방법에 접근한 방법으로 보인다. 특별히 기독교적 세계관 교육과 전수에서 그러하다.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구약의 신자들은 이야기를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전수받았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아담이 자기 아들들을 모아 놓고 '내가 너희 어머니 하와와 에덴동산에서 살던 때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선악과와 생명나무와 뱀과 최초의 범죄에 대해 이야기한다. 아담의 아들들은 눈을 반짝이면서 그 이야기를 듣는다. 아벨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나 고약한 가인은 결국 자기 동생을 죽이고 만다. 노아도 자녀들에게 조상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을 것이다. 그 아들 셈은 술에 취한 노아가 벌거벗고 자던 일로 집안에 일어난 풍파 이야기를 아들들에게, 그들은 다시 자기 아들들에게 전해준다. 아브라함도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이삭에게, 이삭은 다시 야곱에게 이야기해 준다. 성경적 세계관은 이렇게 흐르고 흘러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 따라서 성경의 세계관을 이야기로 풀어내려는 시도는 타당하다. 성경이 사용한 방법을 따르겠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이 무익하거나 무효하다는 것은 아니다. 희랍적 관점에서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특징은 신약 성경에서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는 매우 촘촘한 논증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논리적 전개는 신약 성경의 백미이다. 구약에서는 그런 스타일을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전통적인 철학적 접근 방법에 너무 인색할 필요는 없다.

저자가 성경을 이야기로 풀기로 했으니, 이제 어떤 가닥을 잡아야 할까? 성경은 아주 많은 가닥들이 얽히고 설켜면서 진행되는 대서사이다. 따라서 이 같은 규모와 성격의 글에서는 어느 가닥 하나를 잡아서 풀어낼 수밖에 없다. 저자가 잡은 가닥은 비전(vision)이다. 저자는 비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듯하다. 이전 책인 <니고데모의 안경>도 결국 비전의 문제가 아닌가? 하긴 저자가 평생 씨름한 것이 세계관이니 비전이라는 가닥을 잡은 것이 자연스럽다. 만약 다른 가닥을 잡았다면 도리어 이상했을 것이다(예를 들면, 성전, 메시아, 언약 등등).

그래서 저자는 성경에 등장하는 몇몇 인물들의 비전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풀어간다. 물론 그 비전은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비전이다. 그들이 받았던 비전은 영원히 살아계셔서 완전한 지혜와 능력으로 온 세상을 자신의 가장 완전한 뜻대로 통치하시는 하나



님의 계획에 대한 깨달음이었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야기는 이렇게 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을 만들었고 긴 역사를 끌고 가다가 마침내 완전한 상태로 이끌어 들일 것이다. 나는 역사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너는 그 역사의 한순간을 살고 있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것을 자기의 비전으로 삼은 사람들, 혹은 그것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 책의 몸통이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중요한 두 개의 비전이 부각된다. 하나는 당연히 에덴의 비전이고,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비전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에덴의 계시와 아브라함에 대

한 계시가 된다. 에텐의 계시와 아브라함 계시는 일종의 교차 대구 구조를 이룬다. 아브라함 계시는 신약의 교회와 대응되고, 에텐의 계시는 완성된 나라와 대응되는 까닭이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생애와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오순절 성령강림이 있다.

에텐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

완성된 나라

그렇다면 아브라함 언약과 그것의 성취인 신약의 교회는 창조에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예언과 성취의 관계가 된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되는 교회의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이다. 이것이 비전의 전 과정에 대한 이 책의 설명이다. 1장 에텐의 비전은 창조와 타락, 노아의 홍수 이후 새 출발까지의 과정을, 2장은 아브라함, 3장은 야곱, 4장은 요셉을 다룬다. 5장은 모세이다. 6장은 여호수아, 7장은 사무엘, 8장은 다윗이다. 9장은 이사야, 10장은 에스겔, 11장은 다니엘이다. 12장은 예수님이다. 13장은 바울, 14장은 사도 요한이다.

이 구조는 크게 창조에서 노아의 홍수, 족장 시대, 모세와 가나안 점령, 왕국시대, 선지자의 글, 예수님, 바울과 요한으로 분류될 수 있다. 물론 이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함으로써 내용을 채운다. 결국 저자는 성경 전체 이야기를 몇몇 중요한 인물들과 그들을 이끈 비전과 연결시켜서 풀어내는 셈이다. 거기에는 비전에 충실한 사람들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전에 완전히 충실하지도 완전히 불충실하지도 않았다. 인간인지라 넘어지고 하고 일어서기도 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충실했고 어떤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불충실했다. 사울과 다윗은 둘 다 흠이 있고 넘어졌지만, 다윗이 전체적으로 주어진 비전에 충실했다면 사울은 전체적으로 불충실했다. 그런데 삼손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히브리서 저자가 삼손을 위대한 신앙인의 반열에 올려놓은 사실이 조금 무색해지는 느낌이다.

저자는 일종의 신앙적 에세이 모음집 스타일을 추구한 듯하다. 이야기로 풀어야 하니 지나치게 학문적인 스타일은 안 된다. 그렇다고 사적인 대화 스타일도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글이 너무 무겁지 않으면서도 가볍지도 않은 에세이 형식을 띠게 된 것으로 보인다. 설교라고 할만큼 무겁지 않으면서도 적당한 무게를 지닌 글, 이런 글이 사실 쓰기 어렵다. 저자는 때로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양념 삼아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개해 나간다. 이것은 많은 글을 써온 저자의 필력으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단숨에 읽게 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어려운 시도를 했다. 기독교 세계관의 문제는 단순히 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이다. 이것이 세계관의 본질적인 난점이다. 엄밀히 말해 모든 사람이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세상을 보는 방식이 바로 세계관이

라면 정상적인 정신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세계관이 없겠는가? 그렇다면 세계관의 문제는 결국 두 비전의 충돌이다. 하나는 (굳이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비전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가진 비전이다. 사람은 보통 자기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너의 비전을 버리고 나의 비전을 취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도전 앞에서 어떤 이들은 자기의 비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잡지만,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비전을 포기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부른다. 자기의 비전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자기의 비전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 천국 비유에 대한 저자의 설명과 같이 그 비전을 잡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결국 독자들이 자기의 비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잡게 하려는 것이 저자의 의도이자 목적이다. 그래서 저자는 하나님의 비전을 잡은 사람들의 모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비극을 열심히 소개한다. 물론 비전을 잡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꼭 행복하게 산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비전은 세상살이의 행·불행과는 그다지 상관이 없다. 아니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비전을 잡은 사람은 세상에서 고생을 하기 일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에 충실한 사람들에게는 뭔가가 있다. 그들의 몸과 영혼을 온통 사로잡아 결국 자기를 완전히 불사르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세력, 그래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소진하고 가장 충만한 보람과 기쁨 속에서 삶을 정리할 수 있게 하는 그 어떤 것 말이다. 이것은 아브라함으로

부터 야곱, 요셉, 다윗, 베드로, 바울, 요한 등을 거쳐 면면히 흐르는 전통이다. 그들은 이 땅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하늘에서 살고, 현재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미래에 산다. 이렇게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믿음과 소망임을 저자는 충실히 밝힌다.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늘 이런 스토리텔링을 통해 성경적 세계관을 교육하고 전수해 왔다. 신자들이 매주 교회에서 듣는 설교도 실은 그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만큼 자기의 비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잘 쓰여진 이 책 한 권으로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평생 지속적인 노력을 요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설교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 작은 책이 그 방향을 보여주고 그 필요를 일깨워 준다면 충분히 성공한 것이다.



황명철 총신대에서 신약학(Ph.D.)을 수석하고 영국 University of Surrey에서 에베소서 연구하여 학위를 마치고 현재 성의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다. 저서로는 『이 비밀이 크도다』, 『종생과 윤리』, 『다시 겸손을 말하다』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등 다수가 있다.